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문화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례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李 銀 庭

2006年 12月

문화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黃　京　洙

李　銀　庭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李銀庭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Effect Analysis of Cultural Facilities on the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Focused on Jeju Halla Culture & Art Center-

Lee, Eu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Kyoung-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6.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과정 ····· 3

1) 연구방법 및 범위 ····· 3

2) 연구과정 ····· 4

II. 이론적 고찰 ····· 6

1. 선행 연구 검토 ····· 6

1) 문화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 6

2) 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 추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검토 ····· 9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함의 도출 ····· 10

2. 비용-편익분석이론의 이론 연구 ····· 10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 10

2)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방법 ····· 16

III. 문화정책 분석모형의 설정 ····· 23

1. 정책효과의 항목평가 ····· 23

2. 문화정책의 사회 편익 ····· 24

1)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설계단계 ····· 24

2) 모형설정 및 분석단계 ····· 28

3. 문화정책의 사회 비용 ····· 32
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드는 비용 추정 ····· 32
2) 할인율의 선택 ····· 33

IV. 사례분석 ····· 36

1. 사례분석의 틀 ····· 36
2. 제주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 38
3.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 40
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개요 ····· 40
2)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 ····· 41

4.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편익 분석 ····· 41
1)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 측정 ····· 4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44
3)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 추정 ····· 54
4)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5
5)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편익 추정 ····· 56
5.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비용 분석 ····· 61
6.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의 효율성 평가 ····· 64

V. 결 론 ····· 65

1. 연구의 요약 ····· 6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67

<표 차례>

표 2-1. 문화시설에 대한 연구 ····· 7
표 4-1.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 ····· 39
표 4-2. 표본의 지역적 분포현황 ····· 45
표 4-3.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 45
표 4-4. 제주도내 공연수준에 대한 만족도 ····· 46
표 4-5.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 수준에 대한 만족도 ····· 47
표 4-6. 응답자의 성별 ····· 47
표 4-7. 응답자의 연령 ····· 48
표 4-8.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 48
표 4-9. 응답자의 직업 ····· 49
표 4-10. 응답자의 교육수준 ····· 49
표 4-11. 응답자의 소득수준 ····· 50
표 4-12. 응답자의 현지역 거주기간 ····· 50
표 4-13. 지불의사액(WTP)응답의 분포 ····· 52
표 4-14. 설명변수의 특성 및 계수 추정결과 ····· 53
표 4-15.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 추정 ····· 55
표 4-16.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5%할인율적용) ····· 58
표 4-17.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7.5%할인율적용) ··· 59
표 4-18.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10%할인율적용) ···· 60
표 5-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비용 ····· 63
표 6-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 6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전개과정 ····· 5
그림 4-1. 사례분석의 틀 ····· 37
그림 4-2. 제시금액에 대한 “예”응답률 추이 ····· 52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요구가 최근 급증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문화시설을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공급하는 편이고, 제주도에서도 1980년대 이후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 확보 욕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재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머물거나 개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정책을 사례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사회 편익과 비용의 두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편익은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주지역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즉, 문화시설 건립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경제의 성장,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 비용은 신축정책으로 인해 사용되는 건설비용, 운영비용, 토지매입비 등을 통해 산정하여,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효과를 편익, 비용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 문화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시설 자체의 가치를 측정하였는데, 제주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여 보면, 62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는 7,463백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건립 후 발생하는 도내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각 5%, 7.5%,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총 편익을 구하여 보면 5%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149,737백만 원이 추정되고, 7.5%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121,823백만 원이며, 1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101,567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비용을 분석하여 보면, 2004년에 소요된 토지매

입비 1,360백만 원,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2년간은 소요된 건설비용, 2008년부터 건립 후 소요될 운영비용을, 2008년을 기준으로 22년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5%, 7.5%,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5% 적용시, 61,959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51,276백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총 43,491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5%일 때는 87,778백만 원, 7.5%일 때는 70,547백만 원이었으며, 10%일 때는 58,076백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은 제주도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검토되었다.

주요어 : 문화시설, 공공재, 효율성, 비용-편익 분석, 조건부 가치측정법, 지역투입산출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관련 재화와 서비스는 만일 공공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원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철현(2004:130)에 의하면, 박물관, 도서관, 공원, 체육관, 야외공연장 등 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시설 등의 문화예술관련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재란 어떤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소비할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경합적인 재화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비배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1] 그러므로 문화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결국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그 재화를 공급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관련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인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 앞에서 언급한 공공재에 속한다.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를 이용,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개입을 하여 자연 상태의 자원배분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1) Richard A. Musgrave & Peggy B. Musgrave.(1989).는 공공재(Social Goods) 공급에 있어 시장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비경합적(nonrival)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John E. Anderson은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의 잠재적 역할을 제시하면서, 공공재(Public Goods)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비경합적인 것이 특징이고,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경치를 내가 즐기고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또한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공공재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어떤 이들의 안전을 배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비배제적인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것이다. 이달곤(2005:448)에 의하면,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 정부 개입이 정당하고 효율적 시장경제의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머물거나 개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문화시설의 건설은 일제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박물관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시설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박현・유경준・곽승준, 2004:19). 제주도에서도 198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대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예회관, 학생문화원, 서귀포 컨벤션 센터 등이 이러한 맥락의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한라문화예술회관도 같은 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문예회관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화시설 건립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모든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을 해야 하지만, 한 사회에서 소비되는 문화서비스,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화관련 재화를 공급, 소비하는 실질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편익을 가치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가치재를 시장 가치화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사회 편익과 비용의 두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편익은 문화시설 건립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주민의 문화서비스 향유기회 증대로 보며, 사회비용은 문화정책을 수행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편익, 비용 분석을 통해 문화정책의 효율성[2]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

2) 전상경(1997:127)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자원은 언제나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효율적 사용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로, 정책을 평가할 때 효율성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배분을 의미한다.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현실의 정책분석에는 한 대안과 다른 대안간 효율성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대적 효율성의 측정을 위한 여러 기법들이 고안되어 왔고 가장 대표적 방법이 비용-편익분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갖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 건립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편익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업체에 발생하는 편익인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수준 변화, 즉 문화시설 증가로 인한 기회의 폭의 증대 영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문화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편익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둘째, 첫째의 목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화시설 신축정책으로 인해 사용되는 건설비용, 운영비용, 토지매입비 등을 통한 사회 비용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에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는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효과를 편익, 비용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그 접근방법을 제주도의 문화시설 중 한 곳인 한라문화예술회관에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편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측정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편익의 측정을 위하여 문예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를 계상하고, 다음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수준변화, 즉 문화시설의 신축으로 인하여 문화서비스 향유의 기회 폭의 증대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화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각 개인이 비시장재화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

를 통해 개인이 갖는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김홍배, 1997).

그리고 대상은 현재 건축 중인 한라문화예술회관이며,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한다.

2) 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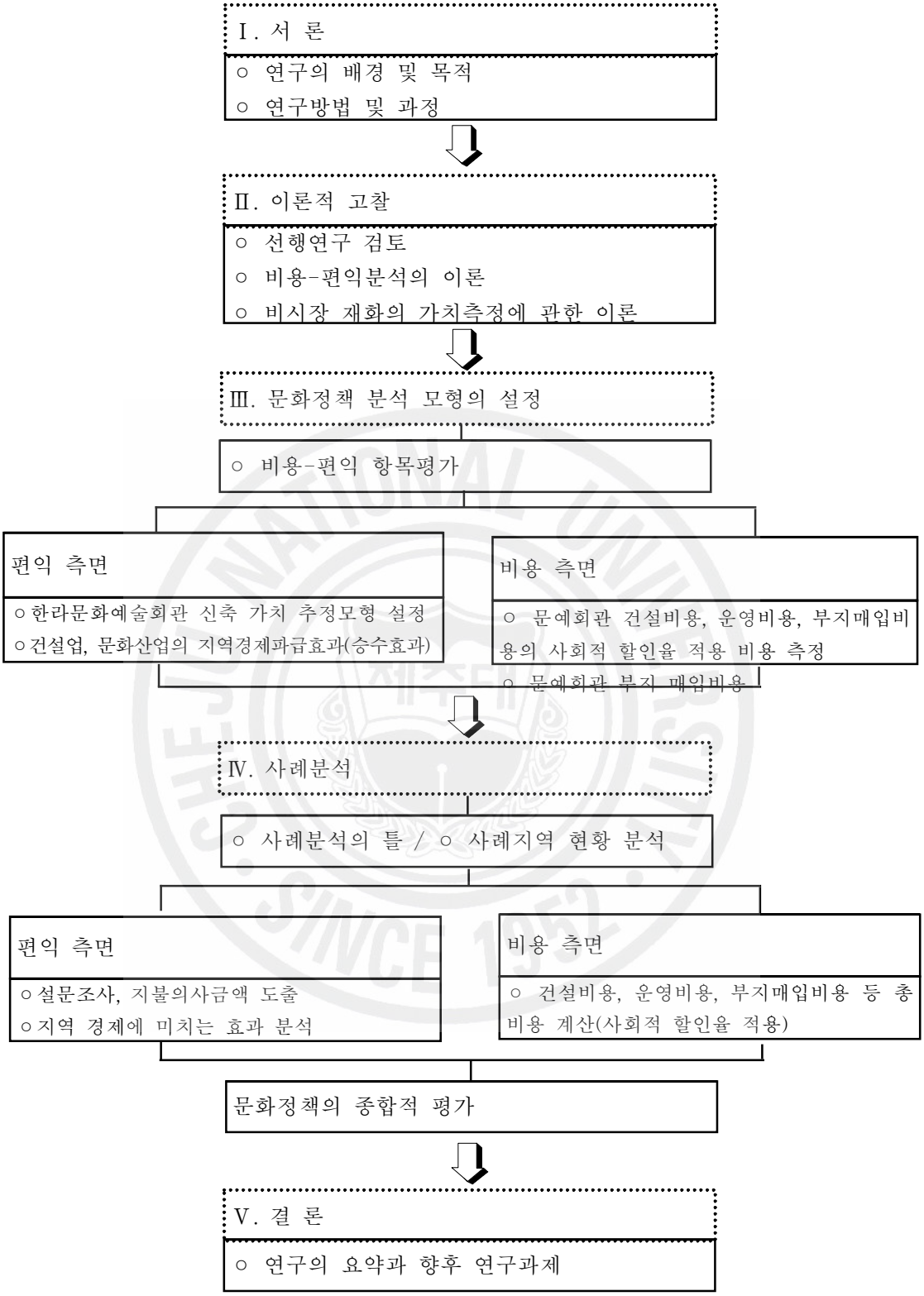
연구의 전개 과정은 <그림 1-1>에 제시된 것처럼 총 5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들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의 효율성 평가와 관련한 이론 중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및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에 관한 이론들이 포함된다.

제3장에서는 문화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 편익 측면과 비용 측면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편익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문화시설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후생 변화분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 설정된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신축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책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의 내용을 계상하게 된다.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설정된 분석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게 되는데, 우선 모형 적용에 앞서 사회적 할인율을 다양하게 적용한 사례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사례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 후, 전술한 분석의 틀에 의해 제주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을 편익 측면과 비용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게 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제주도 지역 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함으로써 문화정책의 편익이 측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편익과 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가 제시된다,



<그림 1-1> 연구의 전개과정

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아울러 조건부 가치측정법, 비용-편익 분석방법 등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

1. 선행 연구 검토

1) 문화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한국에서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부속기구로 문화발전연구소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란 연구기관으로 바뀌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문환·양건열(1998:19)에 따라, 기존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문화유산 보존사업, 문화유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화유산 영역 연구, 둘째, 일반국민을 위한 평생문화학습, 문화행정 전문가 교육, 지역문화 종사자 연수 등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셋째,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메세나 등 민간지원의 촉진, 미술시장이나 공연계와 같은 유통구조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방안 등 문예 진흥에 대한 연구, 넷째,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정책 지원수단, 문화산업 인력의 발굴과 양성 등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 다섯째, 정부의 문화교류 정책 방향, 교류프로그램,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개선방안 등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여섯째, 분단 이후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북한 문화예술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에서부터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문화통합정책과 문화교류정책이 주된 북한문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중 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를 다음 <표 2-1>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표 2-1> 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문화발전연구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책 보고서 중심)

연구시기	연구명	내용
1980년대	◦ 지방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 전국의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 전국 문화권 형성을 위한 연차적, 순차적 틀 제안, 미래 문화시설 기준 설정을 위함.
	◦ 지방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균등배치 연구	◦ 전국 지방 문화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 평가, 지방 문화시설의 균등 배치를 제안함.
	◦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 문화공간의 연간 활용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무화공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함.
	◦ 지역 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	◦ 지역의 문화수준 및 환경을 조사 분석,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청주지역과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함.)
1990년대	◦ 문화공간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문화시설의 분류 및 이론정립, 전반적인 문화공간의 실태 파악, 외국 문화공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화시설의 운영방향을 정립함.
	◦ 국내 대형 복합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예술의 전당 완공에 대비,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조직과 인력, 예산의 조달과 활용, 위상정립, 전속단체의 존속여부와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운영발전계획 및 방향을 제안함.
	◦ 기업미술관 활성화방안	◦ 기업 및 기업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미술관의 운영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화와 활성화방안을 제안함.
	◦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방안	◦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확충방안과 공연장의 설치기준, 운영방안을 제시함.
	◦ 문화의 집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사례 조사연구	◦ 문화의 집과 유사한 외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운영모델을 정립, 제안함.
	◦ 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함.(대전 국립중앙 과학과, 제주 자연사 민속박물관을 대상으로 함.)
	◦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96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의 집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요구,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자료: 김문환・양건열(1998)의 재구성)

이 외에도 문예회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철(2002)은 지역문화정책의 풀뿌리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동의하면서, 운영상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관리주체를 직접관리방식인 행정부서관리형, 사업소형, 직·간접관리방식인 책임 운영기관형, 간접관리방식인 공단(사)형, 민간 위탁형으로 모형화하여 정리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단계별 모형[3]을 적용,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채원호·손호중·김옥일(2004)은 우리나라 문화예술회관의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적 계층화과정 기법(AHP)을 통해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문화정책 및 공립문화시설과 한국의 문화예술회관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정책 전문가 집단과 대구·경북지역 문예회관 관장을 대상으로 문예회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주요 방안들을 1차적으로 추출, AHP 기법의 주요 분석차원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전문가와 관장집단 모두 조직·인력 측면의 중점적인 관리를 중요시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두 번째의 중요도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재정 측면에서의 합리화 방안 모색을 선택한 반면, 관장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합리화 방안 모색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관장과 전문가들 기존의 대관위주 운영방식이 아닌 자체 기획 공연, 전시사업의 강화, 아마추어 공연 지원 등 이전과는 다른 차별적이고 독창적이며 지역적인 기획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박현·유경준·곽승준(2004)의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는 박물관 등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해 고찰한 후, 가상의 박물관 및 과학관을 설정하여 컨조인트 분석법을 통하여 가상시설물의 속성별 지불용의를 추정하였다.

3) "운영프로그램"이란 문예회관이 수행하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종류를 말하고, "지역문화구조적 특성"이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의 개발 가능성,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치단체장의 문화·예술의 육성의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일컬음. 건립단계에는 행정부서관리형을 기본모형으로 project팀 Task-Force팀을 특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단계에서 단일프로그램 운영시 사업소형을 기본모형으로 MBO, 지방문화예술기금을 특징적으로 운영, 수개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시설관리공단내 책임운영기관형을 기본모형으로 이사장제도를 특징적으로 운영하며,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위탁형을 기본으로 경영관리계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이상철, 2002:210)

2) 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 추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검토

최용부·김진현·민병익(2002)은 경남 진주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역사문화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여행비용접근법에 의해 사용가치와 선택가치로 평가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여행비용은(사용가치) 주거지에서 진주성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용(주차비 포함)과 시간비용, 진주성 입장료로 구성하여 진주성의 사용가치를 측정해 본 결과, 연간 340억 원 정도로 추정, 만족가격접근법에 의해 추정한 진주성의 선택가치는 평당 3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주성과 지리적으로 동일하게 남강 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진주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3개동(망경동, 평거동, 신안동)의 평균지가가 반영되어 측정한 결과이다.

도건우·곽승준(2004)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측정, 환경마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사용한 변수는 환경마크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성별, 연령, 환경단체 회원 가입 여부, 교육정도, 세전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사용, 분석 결과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1,152원,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1,385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 대부분 상당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석·유승훈·곽승준(2005)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500원부터 6,000까지 총 12개의 제시금액을 설계하고,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국립박물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 향후 신축국립박물관 방문여부, 응답자의 연령,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광역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후 Hanemann의 효용격차모형에 근거,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2,443원이었다. 이를 이용해 예비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완공 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운영비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사용하였다.

허재용·유승훈·곽승준·이주석(2005)은 국립과학관 신축의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사용한 변수는 국립과학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 향후 신축국립과학관 방문 여부, 응답자의 연령,

세전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3,189원에서 3,343원에 이르며 절단된 평균 지불의사액은 3,547원에서 3,81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함의 도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문화공간의 확충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와 개별시설의 운영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전략들에 주로 초점이 모아졌다.

효과분석측면에서는 주로 효과의 측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산업연관모형을 통해서 지역에 파급효과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1990년대에 있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등을 통해서 일방향인 효과의 측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는다면 본 연구는 일방향적 효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구한 총가치 및 문예회관 운영과 신축공사 사업의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을 합산한 편익으로 구하고, 이 사회적 총편익을 비용이라고 규정한 토지매입비, 건설비용, 운영비용 등을 합산한 총비용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다차원적 연구라 할 수 있다.

2. 비용-편익분석이론의 이론 연구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김홍배(1997)에 의하면, 공공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므로 정책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만이 그 정책은 진정한 공공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동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정책은 사회 내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

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편익을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편익을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측정, 비교하여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갖가지 공공사업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권오상, 1999:232).

김홍배(1997:77)에 의하면,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논리적 전개라고 하였다. 제1단계는 정책정의 단계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째, 정책에 투입되는 요소나 정책의 최종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4] 둘째, 정책효과의 공간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정책효과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비용 또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사람들은 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고, 한 지역의 정책이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간범위의 설정에 따라 측정되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규모는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정책의 경제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집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에 제약이 될 만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정책의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책은 그의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며, 편익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시간의 투자가치는 할인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할인율도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4) 어떠한 자원이 투입되어 최종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분석자는 정책에 투입되는 요소를 노동자의 규모, 토지와 자본의 규모 및 종류 그리고 투입되는 재화의 종류와 양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정책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신도시 건설이나 항만, 도로, 댐, 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 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억제나 촉진 등과 같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 성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며 올바른 분석방향을 설정하게 한다.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책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정책의 편익규모를 계산하는 데 시간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2단계는 분석체계 수립단계로서, 정책 분석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정책분석의 논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첫째, 정책효과를 항목화 하여야 한다. 정책분석이란 정책의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우선 예상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 단계에서 항목화한 개별효과들이 진정으로 비용 또는 편익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시된 항목들이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항목이라면 그 효과의 계량화는 가능한 것인지를 기준하여 항목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이전소득과 이중계산의 가능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5] 셋째, 정책분석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들 중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가 있는 반면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들도 있다. 이에 정책효과의 특징과 가치화의 가능성 그리고 가치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량화 불능효과와 가치화 불능효과, 그리고 가치화 불능효과와 시장재 효과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6] 넷째, 계량분석 범위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분석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목화된 정책효과의 분석방법을 결정하고, 정책대안들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것과 각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경제성은 대안별로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순편익으로 그리고 제시된

---

5) 첫째는 이전소득(transfer payment)에 대한 고려이다. 공공부문에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간 편익과 비용의 단순이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정책으로 인해 어떤 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편익항목이 바로 다른 구성원들의 비용항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항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효과에 대한 항목평가 시 분석자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된 항목에 대한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가능성이다. 이중계산이란 정책의 한 효과가 다른 항목의 이름으로 중복 계산됨으로 인해 정책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6) 계량화 불능효과는 정책의 효과 중 어떤 기준에 의한 측정도 불가능하며, 따라서 금전적 가치로도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말한다. 가치화 불능효과는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효과들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가상의 시장을 조성하여 정책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의 효과는 가격에 의해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또한 금전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효과를 시장재 효과라 한다. 시장재 효과란 그 효과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므로 단위가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계량적으로 계산되면 그의 효과를 가치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다.

정책대안들의 결과 비교는 앞의 세 가지 방법과 점층 편익-비용비 또는 표준화 법에 의한 결과 비교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다섯째, 파라미터값의 변화가 최종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수단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경제성은 각 파라미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파라미터를 선정해야 한다.[7] 여섯째, 앞에서 결정된 분석구조에 의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다음 3단계는 자료수집단계로 앞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다음 4단계는 분석실시 단계로, 정책의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고 각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단계로서 정책효과 중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성적 수준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선택 및 결정 단계로서 정책결정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때 분석자가 정책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정책을 선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 지표로는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순편익(net benefit),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다.

첫째,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는 정책의 총편익(B)을 정책에 투입된 총비용(C)으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당 발생된 편익을 가리킨다. 정책대안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은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이, 그리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은 대안은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가리키므로 정책선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은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면, 그 정책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전체적인 사회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편익-비용비에 의한 정책선택의 규칙은 식(2.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7) 정책분석에서는 자재비, 토지비, 공사비, 인건비 등과 같은 파라미터 값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현실적으로 파라미터값들은 기술혁신이나 유류파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등 경제 외적변화에 따라 변하고 이러한 파라미터값의 변화는 정책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B/C \begin{bmatrix} > \\ = \\ < \end{bmatrix} 1 \quad \longleftrightarrow \quad \begin{bmatrix} \text{정책선택} \\ ? \\ \text{정책기각} \end{bmatrix} \quad \cdots \quad (2.1)$$

편익-비용비와 함께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지표는 순편익(Net Benefit, NB)이다. 이는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순편익이 0보다 크면 그 정책대안은 사회에 순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정책의 가치가 있음을,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정책대안은 사회에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발생시키므로 정책으로 가치가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순편익에 의한 정책 선택의 규칙도 앞의 편익-비용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C \begin{bmatrix} > \\ = \\ < \end{bmatrix} 1 \quad \longleftrightarrow \quad \begin{bmatrix} \text{정책선택} \\ ? \\ \text{정책기각} \end{bmatrix} \quad \cdots \quad (2.2)$$

둘째, 현재가치법이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항목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시점으로 전환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제시된 대안은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을 가리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은 정책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기각된다. 시간의 투자가치를 연 r%라고 할 때, 현재금액 V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다음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현재가치: $V = V_0$,

1년 후의 가치: $V_1 = (1+r)\,V_0$,

2년 후의 가치: $V_2 = (1+r)\,V_1 = (1+r)^2\,V_0$,

.....

n년 후의 가치: $V_n = (1+r)\,V_{n-1} = (1+r)^n\,V_0$. …(2.3)

위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V_0의 n년 후의 가치는 V_n이며, 반대로 n년 후 V_n의 현재가치는 V_0이다. 이와 같이 현재가치와 장래가치의 일반적인 관계는 식(2.4)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은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래가치를 현재부터 장래 기간까지의 투자가치만큼으로 할인(discount)해야 함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간의 투자가치는 바로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전환할 때 할인하는 할인율(discount rate)과 동일하다.

$$V_0 = \frac{V_n}{(1+r)^n} \quad \cdots(2.4)$$

다음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현재가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내부수익률이란 현재가치의 편익과 비용을 서로 동일하게 만드는 일종의 할인율을 말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um_t \frac{B_t}{(1+\lambda)^t} = \sum_t \frac{C_t}{(1+\lambda)^t} , \quad \cdots(2.5)$$

λ :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에 의한 기본적 대안 평가는 대안들의 내부수익률과 할인율, 즉 시간의 투자가치와 비교하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대안의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다면 비용의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대안은 실질적으로 가치(편익)를 증가시키는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시된 대안은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와 반대로 대안의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낮으면 이는 투자된 비용의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작음을 의미하므로 실질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은 정책으로 의미가 없다 하겠다. 단일 대안의 경우 내부수익률에 의한 결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lambda \begin{bmatrix} > \\ = \\ < \end{bmatrix} r \quad \longleftrightarrow \quad \begin{bmatrix} \text{정책선택} \\ ? \\ \text{정책기각} \end{bmatrix} \tag{2.6}$$

그러나 정책기간이 n년일 경우, 내부수익률은 이론적으로 최대 (n-1)개가 될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방법

일반적인 재화의 가치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결정되는 반면 공공재와 같은 비시장재화이거나 외부효과가 커서 시장가격이 재화의 잠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재화에 적합한 가치추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박현·유경준·곽승준, 2004:21) 따라서 가치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사전적 가치를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을 관찰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치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를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얻는가, 또는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얻는가에 의한 구분이고, 두 번째 기준은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가, 또는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가에 의한 구분이다. 직접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은 재화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화폐단위로 나타난 가치가 측정되는 방법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추정대상과 시장재화간 대체적인 관계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시장에서 거래행위가 관찰되는 보완재를 이용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여행비용 접근법, 헤도닉 가격기법 등이 있다. 한편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대상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며,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루어진 대안들을 활용하여 대상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

법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행위를 관찰한 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여행비용 접근법이나 헤도닉 가격기법은 사후적인 가치추정 방법론이며 가상적인 시장을 가정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은 사전적인 가치추정 방법론이다.

(1)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제안된 방법으로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그 재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소비행위에 연관시켜서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즉 특정재화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그 지역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행비용 접근법은 여행에 소요된 직접적인 금전 비용과 시간 비용에 따라 방문횟수가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기본모델로 삼는다. 다른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여행비용이 증가하면 관광지의 방문횟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여행비용과 방문횟수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행비용 접근법은 특정 지역의 관광가치를 평가하거나 여가지역 혹은 휴양지역에서 특정 시설 등의 속성의 질이 개선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여행비용은 그 자체로 여가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가치로 간주된다. 여행비용 접근법에서는 입장료의 증가가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여행비용의 증가가 휴양지역에 대한 방문을 감소시킨다는 전제 아래 수요곡선을 도출한다.

한편 여행비용 접근법은 여행목적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목적들 간에 시간 및 화폐의 기회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용가치만 측정하게 되고 비사용가치에 대한 편익은 배제될 우려가 있다. 셋째, 여행비용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관심대상 재화를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편익이 측정되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는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행비용접근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팔공산 자연공원의 가치를 추정하여 약

11.4조원으로 나타난 이성태・이명헌(1998)의 연구, 대구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주제공원의 하나인 우방타워랜드의 편익가치를 추정 결과 약 5백억 원이 산정된 김수봉・심애경・권기찬(2001)의 연구, 가야산국립공원의 휴양수요를 추정하고, 거리비용에 근거하여 입장객의 물리적 거리 비용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한 이주희・한상열(2003)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관심대상 재화를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하여 분석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즉 비사용가치에 대한 편익이 배제되어 있고, 휴양지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편익을 추정한 연구들 이라기보다는 휴양지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2) 헤도닉 가격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HPT)

주거지의 대기질이나 소음도, 인근 자연휴양시설과의 근접도 등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한 주택의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 헤도닉 가격기법이다. 이 방법은 환경재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과 같은 대체시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헤도닉 가격기법에서는 주택이나 직업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의 가격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헤도닉 가격기법은 기존의 시장가격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조사자의 주관과 자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택시장에 대한 매우 자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누락될 가능성, 여러 환경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만 측정이 가능할 뿐, 비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권오상, 1999).

헤도닉 가격기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금융정보에 대한 편익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여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편익을 연

구한 이형석・박광태(2001)의 연구, 서울시 대기질농도와 평균 아파트 가격과의 영향을 분석한 최종일・심성훈(2002)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주거지의 대기질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환경재의 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비시장 재화에 대해 가치를 추정한 연구들도 있었다.

(3)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단점을 극복한 컨조인트 분석법은 다중속성들로 구성된 환경영향들과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간의 상충관계들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주어진 재화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제공하는 질문을 직접 하는 대신, 하나 이상의 특정 속성대안들을 포함하는 선택이나 선택 집합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효용함수를 추론한 후 다시 효용함수의 여러 속성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상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이 만족하는 선택 및 서열을 표현하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의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직접 화폐가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개별 재화의 속성별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비구분효과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선택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별해내고 최소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고, CVM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을 위한 비시장재화의 변화를 나타내고 일반 응답자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사전적으로 쉽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 상충관계가 있는 선택대안들을 포함한 다수의 질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인식상의 부담을 줄 수 있고, CVM과 마찬가지로 실제상황이 아닌 가상적 상황 하에서의 선택행동이라는 점, 응답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이 있다.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행정서비스 품질의 핵심적인 속성과 고객의 만족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행정서비스 품질 속성의 수준을

연구한 신종화(1999)의 연구, 피자 브랜드 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피자브랜드의 고객 선택 패턴을 분석한 채인숙・이민아・신서영・양일선・차진아(2002)의 연구,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 피해 등 서울시 대기오염 영향의 환경비용을 추정한 유승훈・곽승준・이주석(2003)의 연구, 항공사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측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박태수・이관표(2003)의 연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음식 관련 관광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속성과 각 속성의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 상품조합을 도출한 신서영・장해진・양일선・정라나・이해영(2004)의 연구, 패밀리 레스토랑의 선택속성과 속성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요인을 연구한 안성식・박기용・양주환(2005)의 연구, 한강 수질 개선의 영향을 다양한 속성들로 파악하고 속성별 경제적 편익의 크기를 추정하여 추후 한강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조승국・신철오(2005)의 연구, 한강하구의 속성별 가치를 측정하여 하구환경의 보존 및 관리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곽승준・유승・장정인(2005)의 연구 등이 있다. 환경가치측정 분야를 연구한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 마케팅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브랜드 및 시설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정한 연구들이 있었다.

(4)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화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각 개인이 비시장재화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갖는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로 비상재화의 변화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들을 부여하여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시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이다. 이는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물론,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여행비용 접근법이나 헤도닉 가격기법과 같은 간접적 추정방법이 아니라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물어보아서 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보상잉여나 대등잉여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

고 특정 재화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의 사용가치뿐 아니라 존재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분석하여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개인이 행할 행위를 질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성, 설문시행, 사후분석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승우, 2001).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수질에 대한 지불의사 차이가 생기고, 이는 상이한 지역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낙동강의 상·하류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에 대한 가치를 측정한 김기환(2004)의 연구, 응답자의 성별, 결혼, 교육수준, 가족, 소득수준, 대기오염 피해의 경험의 변수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대기질 편익가치를 산정한 이해춘·정현식·김태영(2004)의 연구,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도건우·곽승준(2004)의 연구, 안동·임하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실시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면서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족 수, 환경교육여부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고 소득변수와 제시금액 변수만 유의한 변수로 분석된 정동환·박규홍(2005)의 연구,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에 대한 관광객들의 가치를 측정하면서 성별, 연령, 소득, 직업, 직장근무형태의 변수를 사용한 이병주·박영석·김명수·남궁문(2005)의 연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에게 DMZ생태관광자원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한 이충기(2005)의 연구는 제시금액, 지역개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무, 연령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건설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출한 권용석·이진각·손영태(2006)의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신축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석·유승훈·곽승준(2005)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국립박물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 향후 신축국립박물관 방문여부, 응답자의 연령,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이었다. 그리고 허재용·유승훈·곽승준·이주

석(2005)은 국립과학관 신축의 편익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사용한 변수는 국립과학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 향후 신축국립과학관 방문 여부, 응답자의 연령, 세전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중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신축에 대한 가치추정에 적용할 방법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신축공사가 아주 초반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건설계획의 변경가능성도 있기에 가치추정목적을 사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시장재화이며, 그 시장도 가상적이라는 점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고자 한다.[8]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를 위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변수로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여부,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 가구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성별 등을 설정하고 WTP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연령, 소득수준 변수에 대하여 이전 공공시설 신축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과연 이 변수들이 제주지역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사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8)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으로 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정확하여 그 사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WRC(Water Resources Council)는 1979년부터 여행비용평가법과 함께 CVM을 수자원 프로젝트 평가기법에 포함시켰으며, ACE(U.S Amy Crops of Engineers)도 CVM을 채택하여 20여개의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EPA도 CVM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미래자원연구소(Resources for the Future)에서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CVM 문헌을 조사하여 CVM이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의장으로 하여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NOAA 보고서를 통해 'CVM은 비사용 가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CVM은 그 유효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환경정책, 자원정책, 도시정책, 수자원정책 등의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특히 CVM은 주로 학문적 범위 내에서 연구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소송과 관련된 가치 측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정부관서, 국제기구, 연구소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황경수, 2005:98).

III. 문화정책 분석모형의 설정

본 장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된다. 문화시설 건립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편익, 즉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비용, 즉 정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건설비용, 운영비용, 토지매입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게 된다.

1. 정책효과의 항목평가

김홍배(1997)에 의하면 정책분석이란 정책의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여 측정, 평가하는 것이므로 분석자는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한 것인지를 우선 예측해야 하며, 그 효과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항목들이 정책분석에서 갖는 의미를 판단하여 분석에 어떠한 항목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항목평가의 기준은 제시된 효과의 의미와 계량화의 가능성으로, 즉 기록된 항목들이 정책분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항목이라면 그 효과의 계량화는 가능한 것인지를 기준하여 항목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첫째는 이전소득(Transfer Payment)에 대한 고려이다. 공공부문에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간 편익과 비용의 단순 이동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정책의 한 효과가 다른 항목의 이름으로 중복 계산됨으로 인해 정책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평가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본 연구대상인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 효과의 항목을 정리하여 보면, 비용부분은 건설비용, 운영비용, 토지매입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 토지매입비용

을 보면, 예를 들어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있기 전 과수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과수원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생산 활동에 대한 편익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그 부지에 없었을 경우 또 다른 생산 활동에 대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부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 지가(地價)이고, 그 지가를 지불하고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지의 가치를 토지매입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익 측면은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화예술회관의 증가로 발생되는 도민의 기회의 폭, 공연관람료 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 중 공연관람료는 문예회관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편익일 수 있지만, 이 항목이 바로 다른 구성원들, 즉 지역 주민들에게는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소득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 문화정책의 사회 편익

1)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설계단계

(1) 1단계: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 설계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의 시장에서는 자연환경의 생태와 그 환경재의 변화를 상세히 묘사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이 평가하는 재화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재의 보존 또는 환경수준의 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불수단이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재화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오호성, 1998).

이와 함께 응답자들로부터 보다 정확한 지불의사금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설계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경매법, 직접질문법, 지불카드법, 그리고 양분선택형 질문법이 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경매법(bidding game)은 우선 일정 금액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하면 좀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반대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좀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다시 지불의사금액을 묻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치 경매에서처럼 제시된 금액에 응답자가 합의할 때에 이 금액을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으로 확정한다. 이 방법은 반복과정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어진 환경재의 가치를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어 표본수가 적어도 신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시작점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개방형 질문법(open ended question)은 응답자에게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금액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질문법에서는 경매법이 갖는 출발점 편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과거에 시장에서 거래해 본 경험이 없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응답자들이 터무니없이 큰 액수나 적은 액수를 제시하거나 혹은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지불카드법(payment cards)은 적은 액수에서 큰 액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격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금액을 지불의사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방형 질문법의 응답자가 화폐로 환산하여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단점과 경매법의 출발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고정점 편의가 발생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고정점 편의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공공재에 대한 세금 등이 지불카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응답자가 이 값에 근접한 지불의사금액을 자신의 지불의사금액으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정점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지불카드에 나타내는 공공재 항목은 평가대상과 크게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고 이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시장재화를 주어진 가격에 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매행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응답자 측면에서 이 방법은, 자신의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

의 지불의사금액이 주어진 금액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판단만 요구되기 때문에 응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는 자신의 실제 지불의사금액을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고 분석자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지불의사금액이 응답자의 실제 지불의사금액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응답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관측치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난해하거나 모호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불의사금액이 과다하게 추정될 단점이 존재한다.

(2) 2단계: 설문지 설계

설문지는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상되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자가 설정한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를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 전문적 용어를 피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성된 설문지는 가상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정도를 검토하고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일반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3단계: 표본설계 및 조사

모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은 크게 전수조사(census survey)와 표본조사(sample survey)로 구분된다. 전수조사는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며, 표본조사는 확률이론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 모집단의 특성을 추리하는 모든 조사를 말하며, 학문적인 표본조사는 어떤 관심의 표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 기술, 설명하며 나아가 그 모집단에 기초한 가설을 검증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어떤 상황에서는 조사과정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여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줄임으로써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표본조사에서 전제가 되는 가정은 특정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한다는 것이다.(채서일, 1997). 표본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과 표본추출방법 그리고 조사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이란 실제 연구를 위해 표본을 추출해내는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서 연구자가 통계적 추정에 의해 정보를 얻어내려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재화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모집단이 잘못 선정되면 모집단 선택편의가 발생하므로 모집단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표본단위, 범위, 그리고 시간의 네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확정지어야 한다. 여기서 표본단위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가구 등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표본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표본추출법과 비확률표본추출법으로 구분된다. 확률표본추출법은 연구대상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무작위적으로 추출되는 경우이며, 여기에는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법, 층화표본추출법, 군집표본추출법 등이 있다. 비확률표본추출법은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일정하지 않고 조사자의 독단이나 의도에 의해 연구대상이 표본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주관적 방법이다. 여기에는 임의표본추출법, 판단표본추출법, 할당표본추출법 등이 있다.

표본조사방법은 대면조사, 전화조사, 그리고 우편조사 등이 있다. 우편조사 방법은 종종 사용되나 회신율이 낮고 무응답의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다. 전화조사 방법은 짧은 시간에 가상적 시장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지불의사금액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이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면조사는 자세한 문답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가상시장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원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고 조사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질문들은 주의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때로 시각적 보조 자료의 사용이 필요하며, 특히 지불의사금액과 관련된 질문은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면조사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2) 모형설정 및 분석단계

(1) 4단계: 지불의사금액 함수 설정 및 추정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와 함수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회귀분석, 또는 최우추정법 등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함수를 추정한다. 지불의사금액이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하여 조사되는 경우, '예' 와 '아니오'의 이산응답(discrete response)형태를 지닌다. 이를 확률모형으로 전환하여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효용이론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Hanemann, 1984).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비시장재화로 전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이산응답 자료로부터 후생측정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의 제약 때문에 기존의 모형을 이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9)]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민 1인당 문화발전기금을 징수할 경우, 도민은 문화발전기금을 지불하면서 이전의 효용수준을 유지, 더 나아가 효용수준의 증대를 꾀하려 하거나, 문화발전기금을 지불하지 않고 변화된 상황 하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포기할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U = v(i, Y; S) + \varepsilon_i \quad \cdots (3.1)$$

U : 효용함수, v : 간접효용함수

i : 비시장재의 소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

Y : 개별응답자의 소득수준

S :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등)

$i=0,1$, $v(\cdot)$: $u(\cdot)$의 평균, $\varepsilon_i \sim i.i.d(0,\sigma^2)$

이 경우 도민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의 두 가지 대안 중 하

9) 이충기(2005) "CVM을 이용한 DMZ 생태관광자원의 가치평가: 국제간비교" 와 황경수(2005) "제주도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 연구를 참고하였음.

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응답자가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 A원을 지불하도록 제안 받았을 때, 수락할 경우의 간접효용함수는 $v(1, Y-A:S)$가 되며, 거부할 경우의 간접효용함수는 $v(0, Y:S)$가 된다. 따라서 도민이 무작위로 설정된 문화발전기금에 대해 이를 기꺼이 지불하고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가치를 둘 경우의 효용 v1은 v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v(1, Y-A:S)+\varepsilon_1 \geq v(0, Y:S)+\varepsilon_0 \quad \cdots(3.2)$$

A : 문화발전기금

그러므로 개별응답자가 A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비시장재를 소비할 확률(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가치를 둘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은 확률함수(probability function)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begin{aligned}\pi_1 &= \Pr[v(1, Y-A,;S)+\varepsilon_1 \geq v(0, Y,;S)+\varepsilon_0] \\ &= \Pr[v(1, Y-A:S)-v(0, Y:S) \geq \varepsilon_0-\varepsilon_1] \\ &= \Pr[\Delta v \geq \eta] \\ &= F_\eta[\Delta v] \quad \cdots(3.3)\end{aligned}$$

π_1 : A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비시장재를 소비할 확률, $\eta = \varepsilon_0-\varepsilon_1$

$F_\eta(\cdot)$: η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때 만일 도민이 문화발전기금 A원을 지불할 경우,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하는데 참여할 확률과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차이(Δv)는 변화된 상황 하에서 도민이 얻는 효용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v &= v(1, Y-A:S) - v(0, Y:S) + (\varepsilon_1-\varepsilon_0) \quad \cdots(3.4) \\ &= v(1, Y-A:S) - v(0, Y:S)\end{aligned}$$

여기서 $\varepsilon 1$과 $\varepsilon 0$은 동일한 변이를 갖고 평균이 0인 무작위변수로 서로 상쇄.

이제 응답자의 자료를 근거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면, 후생척도로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는 단일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표 값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대표 값으로는 평균(mean)과 중앙값(median)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유도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참여할 확률과 불참할 확률에 대한 효용의 차이(Δv)는 설명변수가 범주형 자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통계분석기법은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로짓모델(Logit model)이 널리 이용된다고 하였다(이충기 · 한상열,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용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운영에 참여할 확률(P1)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Delta v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k x_k + \beta_A A = \beta \cdot \bar{x} + \beta_A \cdot A = c + \beta_A \cdot A \quad \cdots(3.5)$$

β : A이외 독립변수의 파라메타 벡터, $\bar{x}$: 독립변수들의 평균값벡터

c : 평균응답자(계수값 ·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P1 = F_{\eta}(\Delta v) = \frac{1}{1+\exp(-c-\beta_A \cdot A)} \quad \cdots(3.6)$$

따라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_{mean})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E(WTP) = WTP_{mean} &= \int_0^{\infty} F_{\eta}(\Delta v) dA \\ &= \int_0^{\infty} \frac{1}{1+\exp(-c-\beta_A \cdot A)} dA \\ &= -\frac{1}{\beta_A} \cdot \left| \ln\left[\frac{\exp(-\Delta v)}{1+\exp(-\Delta v)}\right] \right|_0^{\infty} \\ &= -\frac{1}{\beta_A} \cdot \ln[1+\exp(c)] \quad \cdots(3.7) \end{aligned}$$

다음으로 선형로짓함수로 가정할 경우 누적확률분포는 음의 영역을 갖게 되어 음(negative)의 WTP 값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음의 제시금액(negative bids)면적을 포함한 평균($WTP_{\text{전체}mean}$)을 이용한다.

$$E(WTP) = WTP_{\text{전체}mean} = \int_0^{\infty} F_{\eta}(\Delta v)dA - \int_{-\infty}^{0} [1-F_{\eta}(\Delta v)]dA$$

$$= -\frac{c}{\beta_A} \quad \cdots(3.8)$$

위 두 식에서와 같이 적분구간을 무한대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론적 제약과의 일치성을 위배할 수 있다 하겠다. 즉, 여기서 고려되는 WTP 분포는 오른쪽으로 무제한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이는 소비이론(consumption theory)에 위배될 뿐 아니라 WTP 분포의 실현가능한 상향범위(upper limit)는 실질적으로는 무한적이지 않다(Hanemann, 198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안되는 평균 도출식이 절단 평균값(truncated mean)개념이다.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원을 극소값 제로(0)원에서부터 극대값 Max.A(제시금액, 본 연구에서는 10,000원임)까지의 범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즉 추정확률을 최대제시금액에서 절단시키고, 그 이상의 추정함수의 적분면적을 제외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E(WTP) = WTP_{\text{절단}mean} = \int_0^{Max.A} F_{\eta}(\Delta v)dA$$

$$= \int_0^{Max.A} \frac{1}{1+\exp(-c-\beta \cdot A)}\, dA = -\frac{1}{\beta}[\ln \frac{e^{(-c-\beta A)}}{1+e^{(-c-\beta A)}}]_0^{Max.A}$$

$$= -\frac{1}{\beta}[\ln|\frac{e^{(-c-\beta A)}}{1+e^{(-c-\beta A)}} * \frac{e^{(-c)+1}}{1+e^{(-c)}}|] = -\frac{1}{\beta}[\ln|\frac{e^{(-c)+1}}{e^{(-c)}+e^{(\beta \cdot MaxA)}}|]$$

$$= -\frac{1}{\beta}[\ln|\frac{\exp(c)}{1+\exp(c+\beta \cdot Max.A)}|] \quad \cdots(3.9)$$

다음으로 중앙값은 표준로지스틱 모형의 누적분포함수에 대해 $F_{\eta}(0)=0.5$ 이다. 따라서 중앙값은 $\Delta v = c+\beta_A \cdot A = 0$ 을 만족하는 $A=-\frac{c}{\beta}$ 가 된다. 이는

$WTP_{\text{전체}mean}$ 의 값과 동일하다.

평균값과 중앙값들 사이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평균값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현재 구상중이거나 실행직전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총편익(total benefits)과 총비용(total costs) 비교에 사용되는 반면, 중앙값은 다수결원칙과 같은 의사결정기준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황경수, 2005:1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격과 경험적 이론에 따라 절단된 평균값(truncated mean)을 중심지표 값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5단계: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앞 단계에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에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비시장재화, 즉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한 도민들의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 식(3.10)에 적용함으로써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TV = AW \cdot CH, \qquad \cdots(3.10)$$

TV :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한 제주도 전체 가구의 지불의사금액,

AW :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

CH : 제주도내 총 가구 수.

3. 문화정책의 사회 비용

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드는 비용 추정

공공사업의 비용은 그 범위를 편익의 산정에서 전제로 하는 해당 서비스 개선에 관련되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 비용구성을 정리하여 보면, 사업대상토지의 매입,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매입비, 사업대상 토

지의 조성 및 정비비인 부지조성비, 사업대상시설 건축공사비, 사업대상시설 정비비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세무시설에 대한 토목공사비, 사업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설비비를 포함한 기타시설비, 시설의 유지개량 및 재투자비, 유지보수 및 관리비, 그리고 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김태윤・김상봉, 2004:108). 그리고 김동건(2004)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비용을 논의할 때 사업시설 건설과 관련된 자본비용과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사용관련 재료비 및 각종 소모비 등 운영비용을 산정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광국・도운섭・주효진(2003)의 공공문화시설 건립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연구에서는 비용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사업비용,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경비 등 시설관리 유지비용을 근거로 비용부문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 세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의 세금지출은 최종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편익과 효용의 분석차원에서 비공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금에 관한 부분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가치를 계상하고,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기 위해 평가기준년도의 실질가격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할 비용항목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소요되는 건설비용, 완공 후 2008년부터 소요되는 운영비용, 그리고 부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이다. 그 중 건설비용은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기본계획서 문헌조사 및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조사를 근거로 추정하였고, 운영비용은 기존의 제주문예회관의 2005년 말 1년간 운영비용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시간가치 계상 및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 설명할 사회적 할인율을 세 가지로 적용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운영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보다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2) 할인율의 선택

공공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비용투입과 함께 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생하며, 또한 투자된 비용에 따른 편익은 그 발생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가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의 시점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홍배(1997)는 분석의 기준시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시점을 정책효과의 종료시점으로 정하는 전방접근법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정하는 후방접근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방접근법의 경우 장래에 발생하는 가치를 선정된 기준시점까지 시간의 투자가치만큼 할증시키는 것이고, 후방접근법의 경우 장래에 발생하는 가치를 현재부터 장래까지 시간의 투자가치만큼 할인하는 것이다.[10)]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분석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정책의 대상은 사회 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회 전체의 시간의 투자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김홍배(1997)는 공공정책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공정책 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개인들이 갖는 시간의 투자가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 내 각 개인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할인율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가치를 장래의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가치보다 장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높은 할인율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가치를 크게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하게 되어 미래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작게 된다. 반면 후자는 할인율이 낮은 사람으로 미래가치를 낮게 할인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회전체의 시간 투자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할인율이 단일화되어 있다면 정책 분석시 유용할 것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홍배(199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할인율로는 시장이자율, 투자의 한계생산, 정부의 할인율, 기업의 할인율, 개인의 효용할인율과 사회할인율, 그리고 Pigou의 할인율 등이 있다고 하였다.[11)]

---

10) 할인율이나 할증률 모두 시간의 투자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다(김홍배, 1997:148).

이처럼 사회적 할인율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지만 공공정책 분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사회적 할인율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본영(1981)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율의 범위를 12%~14%로 제시하였는데 이 범위는 이론적 근거에서 측정되었다기보다는 경제학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국의 관리예산처에서는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에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자원과 에너지부문 사업은 7% 이하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산업적 성격의 서비스산업에서는 7%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투자사업에는 6%의 할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투자 산출물 대부분이 시장 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에 판매되는 사업, 민간산업에 대한 보조금사업, 도로사업, 해외에 대한 원조사업 등에는 6%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영기업 등과 같이 정부부분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민간부분에 판매되는 경우와 민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출사업 그리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철도, 도로사업에는 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옥동석, 2000:155-156).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기구 등에서 국가의 공공정책을 분석할 때에도 해당국가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할 때 일률적으로 10%의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김홍배, 1997:167). 반면 한국개발연구원(2001)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공공투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연 7.5%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의 수준이나 경제상황,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시간가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11) 시장이자율이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타인이나 타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원금에 대해 지불할 이자를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로,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이자율부터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사채이자율까지 다양하다. 투자의 한계생산이란 투자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수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투자됨으로 인해 비용을 제외한 연 100만원의 순이익이 창출되었다면 투자의 한계생산은 10%이고, 이를 할인율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할인율이란 정부가 주택채권이나 상수도 채권등과 같이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제시하는 이자율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 5%이다. 기업의 할인율이란 기업이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제시하는 이자율로, 정부가 제시하는 이자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개인의 효용할인율이란 개인이 갖는 두 기간의 한계대체율에 기초한 시간의 투자가치를 말한다. 두 기간의 한계대체율은 바로 장래에 얻게 될 소비를 위해 소비자가 기꺼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려는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할인율이란 개인이 갖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경제전망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Pigou는 현 세대 위주의 의사결정을 막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한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 세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일정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황의 시간적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5%, 7.5%, 10%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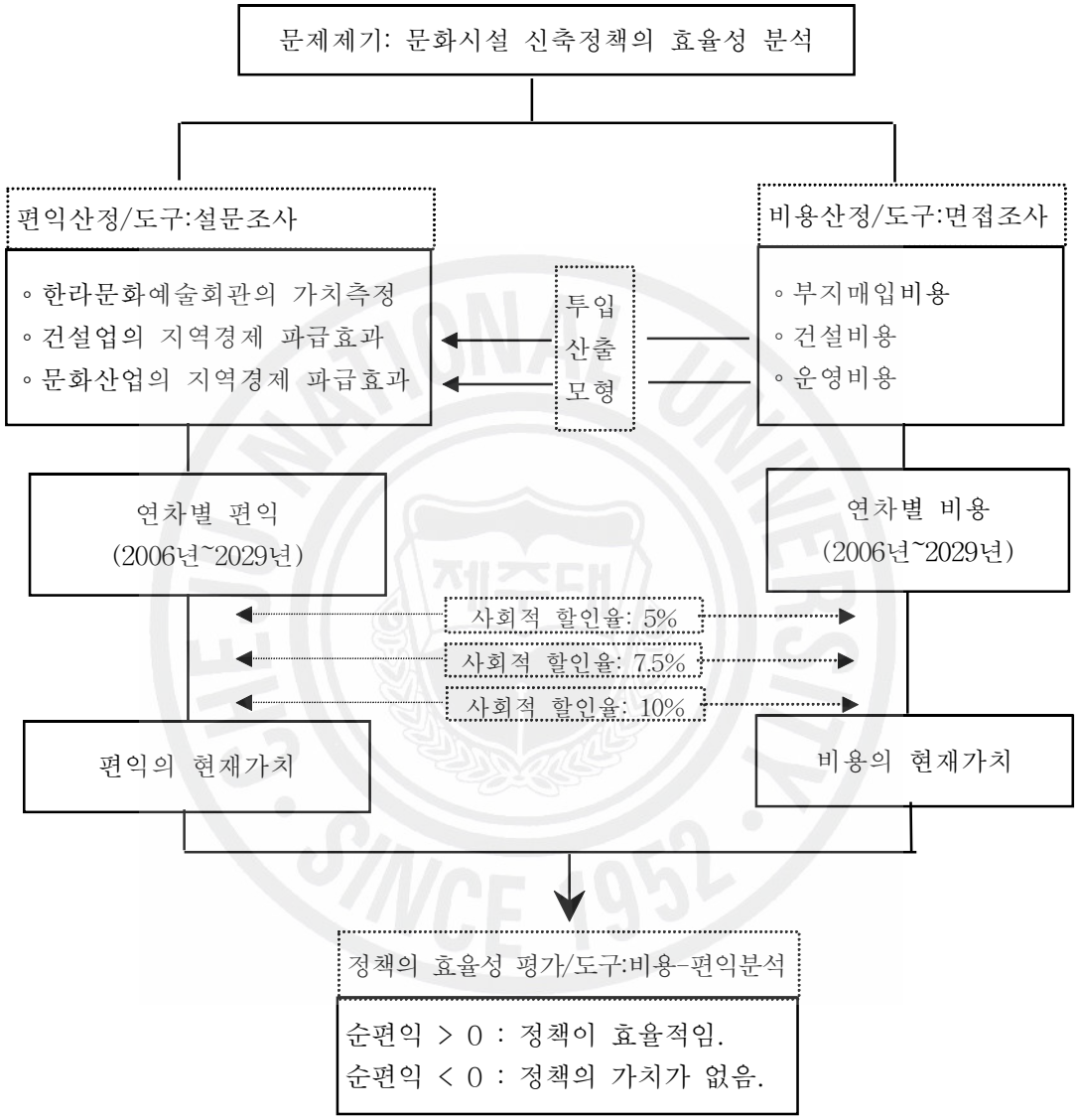
IV.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문화정책 사례를 앞장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적용하여 문화정책의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의 규모를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을 본 연구의 사례인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제주도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신축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여 그리고 산정된 편익과 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1. 사례분석의 틀

문화시설 신축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다음 <그림 4-1>과 같이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고자 제주시청 담당공무원과의 면접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부지매입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을 산정하였고, 그 중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은 제주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여 편익으로 추정하여 각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으로 발생하는 총 편익 중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은 제주도 거주 지역 주민에게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총편익과 총비용을 각각 연차별로 분석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편익과 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을 구한 후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것이다.



<그림 4-1> 사례분석의 틀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의 경제상황, 구성원들의 시간가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현재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산

출하기 위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책의 시간적 동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5%, 7.5%, 10%로 적용,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제주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오늘날 문화는 모든 정책의 중추이념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더욱 강화되리라 보여진다. 한국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한의 문화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고 각 지방 도시들은 특성 있는 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하여 중장기 문화발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 문화복지 국가지향목표를 설정하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시설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문화관광정책"을 발표하여,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실현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5년 문화관광부 비전은 "창의한국의 구현"[12]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관광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소득 증대 및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라 증대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방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13] 2005년에 전국 시·군·구의 56%인 140개소의 문예회관을 2009년에는 시·군·구의 69%인 172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그 지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며, 그 규모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다음 <표 4-1>에 전국문화기

12) 창의한국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는 첫째, 국가발전을 이끄는 문호, 둘째, 문화·관광으로 지역균형발전, 셋째, 광복60주년을 맞아 문화로 국민통합, 넷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다섯째, 아시아의 주임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로 설정하였다.

13)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5 문화정책백서」. 서울:문화관광부.

반시설 현황 중 문예회관은 전체 150개소이고, 제주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문예회관은 1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행정단위, 지역 면적, 지역인구수, 시설 부족율 등의 기준과 함께 도내 공연장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1개소인 문예회관은 그 어느 도시보다 공연일수가 많고 대관이 많아 밀려드는 공연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에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을 거듭할 경우 높아져 가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은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제주시, 2004).

<표 4-1>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 (2005.12.31 기준, 단위:개소)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지자체,교육청,사립)	박물관 (공공,사립,대학)	미술관 (공공,사립,대학)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0	526	364	0	150	165
서울	217	62	86	27	13	29
부산	52	25	15	3	5	4
대구	28	13	7	0	7	1
인천	23	11	3	3	5	1
광주	31	12	6	4	5	4
대전	35	15	13	2	2	3
울산	14	6	1	0	2	5
경기	218	80	77	21	22	18
강원	79	39	17	2	12	9
충북	64	25	20	5	7	7
충남	86	40	24	4	10	8
전북	87	38	17	3	15	14
전남	85	46	11	5	13	10
경북	116	52	27	9	16	12
경남	106	42	27	2	15	20
제주	57	20	13	3	1	20
제주시		4	5		1	6
서귀포시		6	6			3
북제주군		5	2			2
남제주군		5	3			3

(자료: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재구성)

3.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개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지구 부지면적은 24,342㎡(7,363평)이고, 연면적은 8,876㎡(2,685평),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며 자금은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약 972석의 1층 대공연장, 1층 로비 좌우의 전시실, 3층의 회의실, 지하 1층의 예술단 공간, 창작작업실, 야외 (조각)전시장 등의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그림 4-2>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조감도

2)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지난 2006년 1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시작 후, 제주도 사회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사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한라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문화예술계 및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시설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주도 문화당국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특별도가 아닌 예산집행 권한이 없는 제주시 사업으로 남아 있고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제민일보」, 2006).

도의회 문화관광위원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라문화예술회관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입장은 도의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논쟁을 계속하여, 이 사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 출석이 요구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연이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라문화예술회관 확장 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고, 결국 1184석 확장 타협안으로 일단락되었다(「제민일보」, 2006, 「제주일보」, 2006, 「제주의 소리」, 2006).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중 객석확장의 문제로 논란이 있어 도의회와 도 행정부간 갈등을 발생하였을 정도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고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연구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논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4.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편익 분석

1)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 측정

(1) 가상의 시나리오 설계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재화의 가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를 시키는 것과 시나리오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사업을 근거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조감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현실적인 상황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지불수단으로는 문화발전기금이라는 형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불의사금액 설계방법으로는 반복과정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어진 재화의 가치를 좀더 신중히 생각할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응답자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시작점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처음 제시하는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과 그 가치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결정된 지불의사금액을 1000원 단위로 세분화하여 경매법을 통한 본 조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2) 설문지 설계

설문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 수행 목적을 간략히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아주 쉬운 질문으로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을 소개하면서 그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가치 측정을 위하여 현재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지불수단은 입장료, 상품세, 특별기금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가치에는 입장료를 비용가치인 보존가치에는 세금이나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충기, 2005:73). 본 연구 대상인 한라문화예술

회관은 이용가치와 비용가치가 있지만, 지불의사 부분의 설문 설계시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한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는 관람료가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편익 부분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비용부문이므로 두 관계는 상쇄가 되어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발생시키지 않아 제로(0)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발전기금'을 지불수단으로 설정,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거주기간, 가족 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질문하였다.

(3) 표본 설계 및 조사

표본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을 확정하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또한 추출된 표본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 내 가구로 규정하였고,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기 위하여 표본은 가구 수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시켰다. 여기서 지역은 크게 제주시(행정동), 서귀포시(행정동), 제주시(서・읍면), 제주시(동・읍면), 서귀포시(서・읍면), 서귀포시(동・읍면)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지역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표본은 지역 내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조사방법론 등을 이수한 행정학과 학생들을 통해 대면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설정 및 추정

일반적으로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들이 처한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서 달라진다(곽승준, 1996). 본 연구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응답자들의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인지정도 및 도내 공연관람시설 이용실태, 그리고 도내 공연관람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특징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의해서 설명되고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및 도내 공

연관람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그리고 도내 공연관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및 도내 공연관람시설 이용시 지출금액, 도내 공연관람시설에 대한 만족수준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 설명변수와 지불의사금액이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불의사금액 함수는 다음의 식(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다.

$$WTP_i = \beta_0 + \beta_1 G_i + \beta_2 AGE_i + \beta_3 EDU_i + \beta_4 MI_i + \beta_5 KNO_i + \beta_6 \mathrm{EXP}_i + \beta_7 SAT_i + \varepsilon \quad \cdots(4.1)$$

i : 응답자, βi : 계수값, ϵ : 오차항

G : 성별, AGE : 연령, EDU : 교육수준, MI : 소득수준

KNO :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EXP : 공연관람시설 이용시 지출금액

SAT : 도내 공연관람시설에 대한 만족도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앞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0개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과 제주 지역 주민들의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현재 도내 문화시설 이용실태,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본의 지역적 분포 현황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인 제주도의 가구와 표본의 지역별 구성비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지난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두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제주시의 표본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가구 수와 표본수의 구성비는 유사하므로 표본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표본의 지역적 분포현황

구 분	세 대	구성비(%)	표본수	구성비(%)
제주시(행정동)	110,161	53.8	185	57.8
제주시(서・읍면)	22,566	11.0	30	9.4
제주시(동・읍면)	14,320	7.0	20	6.2
서귀포시(행정동)	30,505	14.9	45	14.1
서귀포시(서・읍면)	10,409	5.1	15	4.7
서귀포시(동・읍면)	16,674	8.2	25	7.8
계	204,635	100.0	320	100.0

(2)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금 알고 있거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은 67명으로 전체의 21%에 해당하였다.

<표 4-3>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대부분 알고 있다.	5	1.5
조금 알고 있다.	62	19.4
거의 모른다.	253	79.1
계	320	100.0

설문대상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고자 제시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낮은 인지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지에 설문대상에 대해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가상적 시장에 대한 상황을 여러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면접요원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설문지에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면접요원을 사전 교육시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명이 필요한 문항에서는 조감도 사진 등을 통하여 설명을 추가하게 하여 인지도가 낮

은 측면에 대해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3) 제주도내 공연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에서 시연되고 있는 음악, 오페라, 연극, 무용공연 등 공연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여부를 설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거나 아주 만족하는 사람은 93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명으로 63.8%, 약간 불만족하거나 아주 불만족하는 사람은 2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제주도내 공연 수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아주 만족한다.	4	1.2
대체로 만족한다.	89	27.8
그저 그렇다.	204	63.8
약간 불만족한다.	17	5.3
아주 불만족한다.	6	1.9
계	320	100.0

(4)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 수준에 대한 만족도

현재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은 제주문예회관, 학생문화원, 제주시민회관, 한라아트홀, 수운야외공연장, 탑동해변공연장 등이 있다. 이 시설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거나 아주 만족하는 사람은 103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58명으로 49.4%, 약간 불만족하거나 아주 불만족하는 사람은 59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간 불만족하거나 아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결과는 시설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20.3%),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명(27.1%),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은 12명(20.3%),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람은 7명(11.9%), 공연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5명(8.5%), 관람료가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연관람시설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 대부분 시설수준 및 공연수준이 낮다고 응답을 하여 이에 대한 보완할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5>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 수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아주 만족한다.	5	1.6
대체로 만족한다.	98	30.6
그저 그렇다.	158	49.4
약간 불만족한다.	51	15.9
아주 불만족한다.	8	2.5
계	320	100.0

(5) 제주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사항

① 성별

총 320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전체의 57.8%인 18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표 4-6> 응답자의 성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남 성	185	57.8
여 성	135	42.2
계	320	100.0

② 연령

응답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와 50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40대 응답자는 전체의 36.3%인 116명이고, 50대 응답자는 전체의 35.9%인 115명이었다. 다음은 30대로 전체의 17.2%인 55명이었다.

<표 4-7> 응답자의 연령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20대	18	5.6
30대	55	17.2
40대	116	36.3
50대	115	35.9
60대	16	5.0
계	320	100.0

③ 가구주여부

응답자가 가구주인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가구주라고 응답한 사람은 221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하였다.

<표 4-8>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그렇다.	221	69.1
아니다.	99	30.9
계	320	100.0

④ 직업

응답자의 직업은 <표 4-9>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농림 어업직이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영업(15.3%), 판매/서비스직과 사무/기술직은 각 14.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4-9> 응답자의 직업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농림어업	65	20.3
자영업	49	15.3
판매/서비스직	47	14.7
사무/기술직	47	14.7
전업주부	39	12.2
전문/자유직	30	9.4
기능직	10	3.2
일반작업직	3	0.9
경영/관리직	2	0.6
학생	2	0.6
기타	26	8.1
계	320	100.0

⑤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의 수준이 전체의 143명으로 4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이 112명으로 35%를 차지하였다.

<표 4-10> 응답자의 교육 수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초등학교 졸	11	3.4
중학교 졸	40	12.5
고등학교 졸	143	44.7
대학교 졸	112	35
대학원 졸(석사)	5	1.6
대학원 졸(박사)	9	2.8
계	320	100.0

⑥ 소득수준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월 300만원~350만원의 소득이 1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만원~250만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15.9%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1> 응답자의 소득 수준(월평균 가구소득)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50만원~100만원미만	11	3.4
100만원~150만원미만	31	9.7
150만원~200만원미만	45	14.1
200만원~250만원미만	51	15.9
250만원~300만원미만	50	15.6
300만원~350만원미만	53	16.6
350만원~400만원미만	29	9.1
400만원~500만원미만	26	8.1
500만 원 이상	24	7.5
계	320	100.0

⑦ 현지역 거주기간

응답자의 현지역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10년 이하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38.4%)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1년~20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66명으로 전체의 20.6%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2> 응답자의 현지역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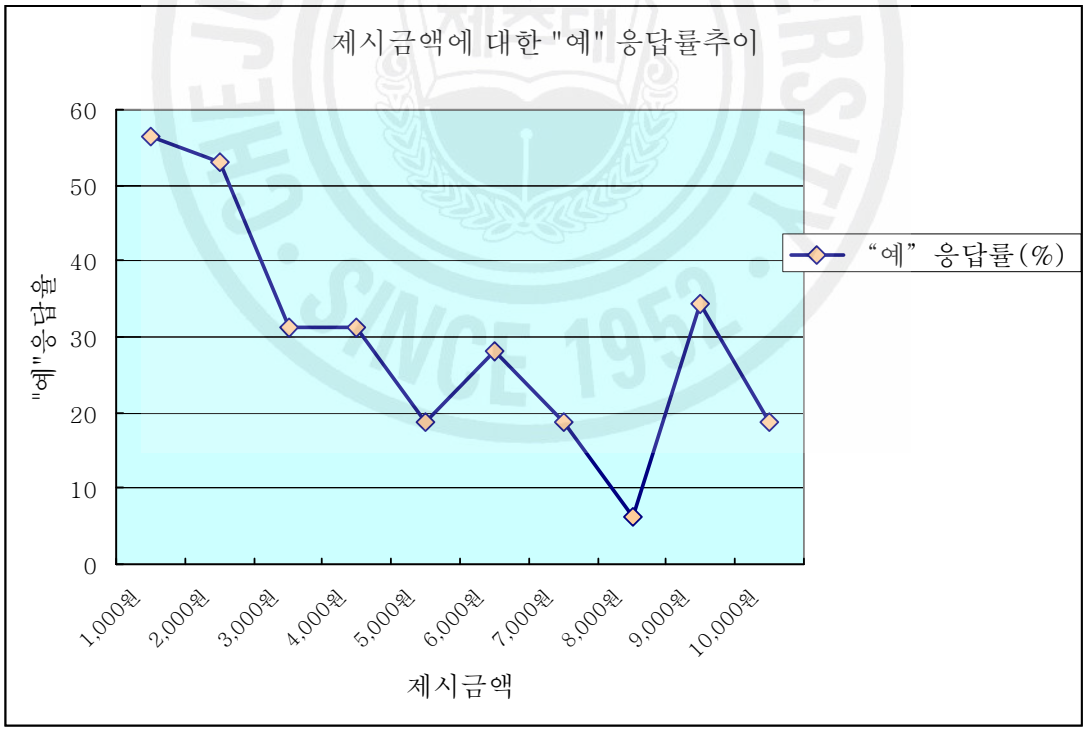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1년~10년 이하	123	38.5
11년~20년 이하	66	20.6
21년~30년 이하	40	12.5
31년~40년 이하	31	9.7
41년~50년 이하	35	10.9
51년 이상	25	7.8
계	320	100.0

(6) 지불의사액 응답의 분포

한라문화예술회의 신축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신축 후 “문화발전기금”의 형태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시금액을 1,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10,000원까지 10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 <표 4-13> 지불의사액(WTP) 응답의 분포를 보면, 전체 320명 중 약 29.7%인 95명이 지불의사를 나타내었다. 그 중 1,000원에 대해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는데, 9,000원에 대해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11명이나 되는 점은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약간 비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한계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 <그림4-2> 제시금액에 대해 “예”를 응답한 추이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상치에 대해 Mitchell과 Carson(1989)과 Green(1992) 등에 의하면 ‘저소득 응답자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경우이거나, 고소득 응답자가 다른 설문에서는 특정 환경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화폐를 이용한 지불의사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경우’에 그 값을 이상치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상치가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금액별 유효표본수가 일정량 존재해야 하고, 조사기간의 제약 등의 문제로 이들 자료를 유효 표본으로 활용, 분석하기로 하였다.

<표 4-13> 지불의사액(WTP) 응답의 분포

제시금액	표본의 크기	“예”응답자(명)	“예”응답률(%)
1,000원	32	18	56.3
2,000원	32	17	53.1
3,000원	32	10	31.3
4,000원	32	10	31.3
5,000원	32	6	18.8
6,000원	32	9	28.1
7,000원	32	6	18.8
8,000원	32	2	6.3
9,000원	32	11	34.4
10,000원	32	6	18.8
계	320	95	29.7



<그림 4-2> 제시금액에 대한 “예” 응답률 추이

(7) 설명변수의 로짓모형 추정결과

우선, 앞에서 살펴본 설명변수들의 특성 및 계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4-14>와 같다.

<표 4-14> 설명변수의 특성 및 계수 추정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계수(B)	유의확률	EXP(B)	비 고
인지정도	2.78	0.454	-0.971	0.0003	0.379	3등간척도 (대부분 알고 있다:1.~ 거의 모른다:3)
연령	3.18	0.964	-0.303	0.0233	0.738	5등간척도 (20세~30세:1~ 60세이상:5)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소득)	1.57	0.496	0.449	0.0971	1.566	2등간척도 (250만원 미만:1~ 250만원 이상:2)
문화발전기금	5500	2876.78	-0.00019	0.00008	1.000	10등간척도 (1,000원~10,000원)
상수			2.995	0.0019	19.980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로짓모형 추정결과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소득수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 연령이 유효한 반면, 성별, 교육수준 등은 지불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에서 보는 것처럼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인지정도(KNO)의 평균은 2.78, 표준편차는 0.454이며, 계수 값은 -0.971로 음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수록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EXP(-0.971)=0.379이므로 다른 설명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사

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불의사확률이 0.379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령변수(AGE)의 평균은 3.18, 표준편차는 0.964이고, 계수값은 -0.303으로 역시 음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XP(-0.303)=0.738이며, 다른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았을 때, 이는 연령이 적은 사람일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 문화발전기금을 지불할 확률이 0.738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은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가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단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설문조사 당시에는 5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9단계의 척도로 나누어 조사를 하여 <표 4-11>과 같이 응답결과가 분석되었지만,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본 결과,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변수로 결과값이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묻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월평균 소득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지불의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므로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14]를 이용하여 소득 변수의 척도를 250만원 미만과 250만원 이상의 척도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한 결과, 그 결과 값은 <표 4-14>와 같이 나타났다. 세전 월평균 가구소득(MI)의 평균은 1.57이고 표준편차는 0.496이며, 계수 값은 0.449로 양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설명변수들의 변화가 없을 때, EXP(0.449)=1.566이므로,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문화발전기금을 지불할 확률이 1.566배 늘어남을 알 수 있다.

3)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 추정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함수 수식 (4.1), (4.2)과 <표 4-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제주도민들의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치 보전을 위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14) 통계청. www.kosis.nso.go.kr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자료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2005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경상소득이 약 2,750,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2,500,000원으로 나누어 두 단계로 변수를 정의하였다.

$$WTP_i = 2.995 + \beta_1(-0.971) + \beta_2(-0.303) + \beta_3 0.449 + \varepsilon$$

…(4.2)

i : 응답자, βi : 계수값, ϵ : 오차항

$$E(WTP) = WTP_{절단mean} = \int_0^{Max.A} F_{\eta}(\Delta v)dA$$

$$= \int_0^{Max.A} \frac{1}{1+\exp(-c-\beta \cdot A)} dA = -\frac{1}{\beta}[\ln \frac{e^{(-c-\beta A)}}{1+e^{(-c-\beta A)}}]_0^{Max.A}$$

$$= -\frac{1}{\beta}[\ln|\frac{e^{(-c-\beta A)}}{1+e^{(-c-\beta A)}} * \frac{e^{(-c)+1}}{1+e^{(-c)}}|] = -\frac{1}{\beta}[\ln|\frac{e^{(-c)+1}}{e^{(-c)}+e^{(\beta \cdot MaxA)}}|]$$

$$= -\frac{1}{\beta}[\ln|\frac{\exp(c)}{1+\exp(c+\beta \cdot Max.A)}|]$$

…(4.3)

c : 평균응답자(독립변수들의 평균값 · 독립변수들의 계수값), Max.A : 10,000(원)

분석 결과,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절단된 평균값으로, 가구당 월 평균 3,039원의 발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설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여 보면, 62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는 7,463백만 원이 된다고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표 4-15>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 추정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원)	제주도내 가구 수 (가구)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불의사액(백만 원)	연간 총가치 (백만 원)
3,039	204,635	622	7,463

4)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은 해당지역 건설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 산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주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김홍배(2001)에 의하면, 투입산출모형이란 산업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와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의 관찰된 경제 자료로부터 만들어진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경제를 분석한다. 여기서 투입산출표란 일정기간 동안 경제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를 말한다. 투입산출표로부터 산업간 제품의 흐름, 즉 산업간 상호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투입산출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간 투입산출계수를 전 산업에 대해 계산하고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투입산출계수 행렬이 작성되고, 이러한 투입산출계수 행렬은 각 산업의 생산구조를 보임으로써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5)]

이와 같이 제주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투입산출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입산출표 작성은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기에는 시간, 비용의 막대한 소요로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작성된 제주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하고자 하여, 최근 제주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 활용한 황경수・고태호(2005)의 연구를 참고해 본 결과, 제주지역 건설업의 부가가치 승수는 0.9003으로 나왔다. 부가가치 승수는 건설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역의 부가가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승수로서, 건설비용과 부가가치 승수의 곱이 바로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제주지역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제주지역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승수를 구하면 0.841이 나왔다.

5)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편익 추정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항목으로는 첫째, 한라문화

15)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산업과 산업사이에는 복잡한 상호 의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수요 변화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산출계수 행렬이 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투입산출계수 행렬이 보여주듯이 산업과 산업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그 산업과 타 산업간의 투입산출계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변화의 충격은 산업간에 무한히 파급된다. 산업의 최종 수요 한 단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나타내며, 이를 승수행렬(multiplier matrix)이라 한다(김홍배, 2001).

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이용자 및 비이용자에게 잠재적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를 측정한 지불의사액, 둘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문화산업의 도내 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하여 총 편익을 추정할 것이다.

이는 2007년 한라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2008년부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2029년까지 22년간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대량 발생하고, 정책으로 인한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문화발전기금 지불의사액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 자체의 가치를 측정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지불의사액은 앞서 제시된 함수에 의해 계산된 결과, 절단된 평균값으로는 3,0.39원의 발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설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여 보면, 62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는 7,463백만 원이 되었고, 이를 다양한 할인율에 적용한 결과 다음 <표 4-16>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표 4-17>은 7.5%의 할인율을, <표 4-18>은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였다.

둘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 건설업의 부가가치 승수(0.9003)를 건설비용에 곱하여 각 5%, 7.5%,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편익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발생하는 도내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위 편익 계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제주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승수(0.841)를 문예회관 운영비용에 곱하여 각 5%, 7.5%,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 4-16>, <표 4-17>, <표 4-1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시 발생하는 총편익은 5%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표 4-16>에 제시된 것처럼 149,737백만 원이 추정되고, 7.5%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표 4-17>처럼 121,823백만 원이며, 1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는 <표 4-18>과 같이 101,567백만 원이다.

<표 4-16>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5% 할인율 적용)

(단위:백만원)

연 도	편 익(현재가치 5% 할인율)						
	한라문화 예술회관의 가치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		문화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편익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6	-		2,267	2,160			2,160
2007	-		3,749	3,570			3,570
2008	7,463	7,108			3,469	3,304	10,412
2009	7,463	6,769			3,469	3,147	9,916
2010	7,463	6,447			3,469	2,997	9,444
2011	7,463	6,140			3,469	2,854	8,994
2012	7,463	5,847			3,469	2,718	8,565
2013	7,463	5,569			3,469	2,589	8,158
2014	7,463	5,304			3,469	2,465	7,769
2015	7,463	5,051			3,469	2,348	7,399
2016	7,463	4,811			3,469	2,236	7,047
2017	7,463	4,582			3,469	2,130	6,712
2018	7,463	4,363			3,469	2,028	6,391
2019	7,463	4,156			3,469	1,932	6,088
2020	7,463	3,958			3,469	1,840	5,798
2021	7,463	3,769			3,469	1,752	5,521
2022	7,463	3,590			3,469	1,669	5,259
2023	7,463	3,419			3,469	1,589	5,008
2024	7,463	3,256			3,469	1,514	4,770
2025	7,463	3,101			3,469	1,441	4,542
2026	7,463	2,953			3,469	1,373	4,326
2027	7,463	2,813			3,469	1,307	4,120
2028	7,463	2,679			3,469	1,245	3,924
2029	7,463	2,551			3,469	1,186	3,737
합 계							149,737

<표 4-17>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7.5% 할인율 적용)

(단위:백만원)

연 도	편 익(현재가치 7.5% 할인율)						
	한라문화 예술회관의 가치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		문화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편익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6	-		2,267	2,160			2,160
2007	-		3,749	3,487			3,487
2008	7,463	6,942			3,469	3,227	10,169
2009	7,463	6,458			3,469	3,002	9,460
2010	7,463	6,007			3,469	2,793	8,800
2011	7,463	5,588			3,469	2,598	8,186
2012	7,463	5,198			3,469	2,416	7,614
2013	7,463	4,836			3,469	2,248	7,084
2014	7,463	4,498			3,469	2,091	6,589
2015	7,463	4,185			3,469	1,945	6,130
2016	7,463	3,893			3,469	1,809	5,702
2017	7,463	3,621			3,469	1,683	5,304
2018	7,463	3,368			3,469	1,566	4,934
2019	7,463	3,133			3,469	1,457	4,590
2020	7,463	2,915			3,469	1,355	4,270
2021	7,463	2,711			3,469	1,260	3,971
2022	7,463	2,522			3,469	1,172	3,694
2023	7,463	2,346			3,469	1,091	3,437
2024	7,463	2,183			3,469	1,015	3,198
2025	7,463	2,030			3,469	944	2,974
2026	7,463	1,889			3,469	878	2,767
2027	7,463	1,757			3,469	817	2,574
2028	7,463	1,634			3,469	760	2,394
2029	7,463	1,520			3,469	707	2,227
합 계							121,823

<표 4-18>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10% 할인율 적용)

(단위:백만원)

연 도	편 익(현재가치 10% 할인율)						
	한라문화 예술회관의 가치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		문화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편익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06	-		2,267	2,160			2,160
2007	-		3,749	3,409			3,409
2008	7,463	6,785			3,469	3,154	9,939
2009	7,463	6,168			3,469	2,867	9,035
2010	7,463	5,607			3,469	2,606	8,213
2011	7,463	5,097			3,469	2,369	7,466
2012	7,463	4,634			3,469	2,154	6,788
2013	7,463	4,213			3,469	1,958	6,171
2014	7,463	3,830			3,469	1,780	5,610
2015	7,463	3,482			3,469	1,618	5,100
2016	7,463	3,165			3,469	1,471	4,636
2017	7,463	2,877			3,469	1,337	4,214
2018	7,463	2,616			3,469	1,216	3,832
2019	7,463	2,378			3,469	1,105	3,483
2020	7,463	2,162			3,469	1,005	3,167
2021	7,463	1,965			3,469	914	2,879
2022	7,463	1,787			3,469	830	2,617
2023	7,463	1,624			3,469	755	2,379
2024	7,463	1,477			3,469	686	2,163
2025	7,463	1,342			3,469	624	1,966
2026	7,463	1,220			3,469	567	1,787
2027	7,463	1,109			3,469	516	1,625
2028	7,463	1,008			3,469	469	1,477
2029	7,463	917			3,469	426	1,343
합 계							101,567

5.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비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비용항목으로 토지매입비, 건설비용, 운영비용을 포함시켜 비용을 추정하였다. 우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의 편익은 2008년부터 2029년까지 22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검사를 통해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공건물임을 감안하고 또한 공공정책의 편익을 추정할 때엔 시간의 적절한 투자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약 22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분석하였다[16].

또한 총비용중 사업비 즉 건설비용은 2006년 2,519백만 원, 2007년 4,165백만 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총 사업비가 15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도비 20억원, 시비 1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40억원, 2004년 15억원, 2005년 5억원, 2006년 5억원, 2007년 85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2004년 부지 매입 이후 2006년 1월부터이고, 그리고 건설비용 중 도내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 이는 연구의 범위를 설정할 때,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1,360백만 원을 제한 나머지 사업비의 49%를 계상하여 2006년, 2007년 건설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은 토지매입비 1,360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2년간은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운영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도내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전체 좌석수가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크게 차이가 없고, 소극장, 전시실 등 전체적인 시설규모가 비슷하여 문화예술회관의 2005년 연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를 근거로 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였

16) 박광국・도운섭・주효진(2003:944).

다. [17]

부지매입비, 건설비용, 운영비용 등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모든 비용은 2006년 말의 현재가치로 환산시켰는데, 이에 적용된 할인율은 시간적 흐름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을 위하여 일정한 할인율이 아닌 5%, 7.5%, 10%로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도별 비용의 흐름을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환산한 결과, 2029년까지 총 61,959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51,276백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총 43,491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기존 제주문화예술회관은 1988년 설립된 공공문화시설로서, 897석의 대극장과, 200석 규모의 소극장, 157평의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신축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은 약 900석의 대극장과, 소극장, 200평의 전시실의 시설 등이 배치되어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설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제민일보, 2006).

<표 5-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비용

(단위:백만원)

연 도	비 용				현재가치 (5%할인율)	현재가치 (7.5%할인율)	현재가치 (10%할인율)
	토지매입비	건설비용	운영비용	총비용			
2004	1,360			1,360	1,295	1,265	1,236
2006		2,519		2,519	2,399	2,343	2,290
2007		4,165		4,165	3,967	3,874	3,786
2008			4,125	4,125	3,929	3,837	3,750
2009			4,125	4,125	3,741	3,569	3,409
2010			4,125	4,125	3,563	3,320	3,099
2011			4,125	4,125	3,394	3,089	2,817
2012			4,125	4,125	3,232	2,873	2,561
2013			4,125	4,125	3,078	2,673	2,328
2014			4,125	4,125	2,932	2,486	2,117
2015			4,125	4,125	2,792	2,313	1,924
2016			4,125	4,125	2,659	2,152	1,749
2017			4,125	4,125	2,532	2,001	1,590
2018			4,125	4,125	2,412	1,862	1,446
2019			4,125	4,125	2,297	1,732	1,314
2020			4,125	4,125	2,188	1,611	1,195
2021			4,125	4,125	2,083	1,499	1,086
2022			4,125	4,125	1,984	1,394	987
2023			4,125	4,125	1,890	1,297	898
2024			4,125	4,125	1,800	1,206	816
2025			4,125	4,125	1,714	1,122	742
2026			4,125	4,125	1,632	1,044	674
2027			4,125	4,125	1,555	971	613
2028			4,125	4,125	1,481	903	557
2029			4,125	4,125	1,410	840	507
합 계					61,959	51,276	43,491

6.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의 효율성 평가

앞서 제시하였듯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인해 2008년부터 22년간 발생하는 총편익은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의해 달라졌는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149,737백만 원이었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21,823백만 원이었으며,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101,56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비용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비용이 소요되었고, 2008년부터 22년간 소요되는 총비용 역시 사회적 할인율에 의해 달라졌다.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61,959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51,276백만 원이었으며,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43,491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표 6-1>에 제시하였는데, 순편익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5%일 때는 87,778백만 원, 7.5%일 때는 70,547백만 원이었으며, 10%일 때는 58,076백만 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은 제주도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검토되었다.

<표 6-1>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년)

할인율	편익(B)	비용(C)	순편익(B-C)
5%	149,737	61,959	87,778
7.5%	121,823	51,276	70,547
10%	101,567	43,491	58,076

V.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제주도에서도 198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대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 확보 욕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같은 문화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결국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그 재화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문화기반시설 등을 정부에서 공급하는 편이다. 개별 지자체당 1관씩 문화예술회관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건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검을 감안할 때 나머지 건립비용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책집행으로 이뤄지는 최종 결과가 정책 이전으로는 원상복구가 거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간에 걸쳐 편익은 서서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문화시설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편익은 첫째,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이용자 및 비이용자에게 잠재적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를 측정한 지불의사액, 둘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문화산업의 도내 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비용은 토지매입

비, 건설비용, 운영비용을 계상하여 총비용으로 전제하였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첫째, 문화발전기금 지불의사액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 자체의 가치를 측정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제주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여 보면, 62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가상적 가치는 7,463백만 원이 되었다. 둘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5%의 할인율을 적용시 5,730백만 원, 7.5% 할인율일 때에는 5,647백만 원, 10% 적용시 5,569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발생하는 도내 문화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의 할인율을 적용시 45,664백만 원, 7.5% 할인율일 때에는 36,834백만 원, 10% 적용시 30,427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시 발생하는 총 편익은 5%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149,737백만 원이 추정되고, 7.5%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121,823백만 원이며, 1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는 101,567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비용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토지매입비 1,360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2년간은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운영비용을 산정한 후,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모든 비용은 2006년 말의 현재가치로 환산시켰는데,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환산한 결과, 2029년까지 총 61,959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51,276백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는 총 43,491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5%일 때는 87,778백만 원, 7.5%일 때는 70,547백만 원이었으며, 10%일 때는 58,076백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은 제주도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 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방법은 향후 이와 유사한 문화시설 건설과 관련한 정책의 효율성 분석에 응용이 가능하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내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국내 문화시설 및 유사한 시설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문화시설의 신축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론을 적용,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설문과정에서 응답자들은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들이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일정수준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한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경향이 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1%로 그 비율이 낮게 나왔다. 물론,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면접 조사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설문지를 설계, 조사하였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 인지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지만, 여전히 한계로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일정한 시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지불의사금액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특성과 지역 내 가구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변수가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향후 정책 분석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제반여건이 변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별도의 분석, 예를 들어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경제성이 각 변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적용,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참 고 문 헌

고숙희. (200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0(2):289-306.

고태호. (2001). 관광개발이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곽승준・유승・장정인. (2005).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하구환경의 가치추정:한강하구를 중심으로. 2005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1-17.

곽승준・유승훈. (2001). 동강 자연환경 보존의 경제적 편익 추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9(2):163-184.

곽승준・전영섭. (1995). 「환경의 경제적 가치」. 서울:학현사.

권오상. (1999). 「환경경제학」. 서울:박영사.

권용석・이진각・손영태. (2006).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 산출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6(6D):945-950.

김기환. (2004).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8(3):301-322.

김동건. (2004). 「비용・편익분석」. 서울:박영사.

김문환. (1998).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문환・양건열. (1998). 「한국문화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수봉・심애경・권기찬. (2001).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한 대구 우방타워랜드의 편익가치 추정. 「한국환경과학회지」. 10(3):173-178.

김재범. (2005). 「문화산업의 이해」. 서울경제경영.

김종대・조문기. (2005).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4(1):101-134.

김태윤・김상봉. (200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서울:박영사.

김홍배. (1997). 「비용편익분석론」. 서울:홍문사,

김홍배. (2001).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도건우・곽승준. (200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지불의사 분석. 「재정정책논집」. 6:3-20.

도정일. (1987). 「문화산업론」. 서울:나남.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5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박광국・도운섭・주효진. (2003). 공공문화시설 건립사업의 투자효과분석-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한국행정논집」. 15(4):937-952.

박태수・이관표. (2003).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항공사의 브랜드 자산 및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13:101-121.

박현・유경준・곽승준. (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서경천. (2006). GIS와 통계의 결합에 의한 부동산가격의 탐색적 분석-헤도닉 가격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3):67-81.

손소영・장인상・이지수. (2005). QFD와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여대생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 사례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33(1):11-21.

신서영・장해진・양일선・정라나・이해영. (2004).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한국 전통음식 관광상품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9(5):654-662.

신승식. (2001). 환경적 재화의 가치평가기법인 헤도닉(,Hedonic) 가격모형의 이론적 구성. 「월간해양수산」. 197:1-19.

신종화. (1999). 행정서비스 품질에 관한 고객욕구조사-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해서-. 「한국행정학보」. 33(1):35-46.

안성식・박기용・양주환. (2005).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8(1):87-104.

안종현・손대현・이연택・이충기. (1995). 한국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9(1).

오동훈・이재순・정만모. (2006).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공공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2):75-96.

옥동석. (2000). 실용적인 사회적 할인율:개념과 적용상의 쟁점. 「공공경제」. 5(2):137-166.

유승훈・곽승준・이주석. (2003).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오염 영향의 환경비용 추정. 「지역연구」. 19(3):1-17.

이대희. (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이병주・박영석・김명수・남궁문. (2005). CVM을 이용한 관광지 접근도로 신설에 따른 편익추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5(3D):403-408.

이상철. (2002).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바람직한 행정관리주체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11(3):193-297.

이성태・이명헌. (1998). 대구 팔공산 자연공원의 편익가치 추정-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하여-. 한국환경경제학회 1998정기학술대회논문집. 55-78.

이성태・이명헌. (2001). 휘발유 가격변화에 대한 자동차 연비의 수요탄력성 추정-대구시를 대상으로 헤도닉기법을 이용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10(1):45-64.

이주석・유승훈・곽승준. (2005).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의 경제적 편익 측정. 「공공경제」. 10(1):1-22.

이주희・한상열. (2003). 여행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야산국립공원의 휴양수요와 편익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7(1):35-40.

이충기. (2005). CVM을 이용한 DMZ 생태관광자원의 가치평가:국제간 비교. 「관광・레저연구」. 17(4):65-81.

이형석・박광태. (2001). 헤도닉 가격기법을 이용한 전자금융 정보서비스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11(4):43-62.

임혜진・유승훈・곽승준. (2006). 서울시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2(2) : 225-250.

전상경.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정동환・박규홍. (2005).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5(2B):165-171.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5).「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정철현. (2004).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제주시. (2003). 「국립제주극장 건립기본구상 연구」. 제주시.

제주시. (2004).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제주시.

조승국・신철오. (2005). 한강수질개선의 속성별 경제적 편익. 「자원・환경경제연구」. 14(3):655-672.

채원호・손호중・김옥일. (200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분석적 계층화과정 기법(AHP)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6(2):287-311.

채인숙・이민아・신서영・양일선・차진아. (2002).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피자 브랜드 선택 속성의 중요도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3):354-360.

최용부・김진현・민병익. (2002). 도시역사문화공원의 사회적 가치: 진주성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36(4). 107-127.

최종일・심성훈. (2002).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기질의 영향-헤도닉 가격 기법을 이용하여-. 「자원・환경경제연구」. 11(2):261-278.

한국문화경제학회. (2001). 「문화경제학 만나기」. 서울:김영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황경수. (2005). 「제주도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허재용・유승훈・곽승준・이주석. (2005). 국립과학관 신축의 공익적 가치.「경제학연구」. 53(4):259-278.

池上 惇. (1991). 「문화경제학 입문」. 강응선(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Aliza Fleischer・Daniel Felsenstein. (2002). Cost-Benefit Analysis Using Economic Surpluses: A Case Study of a Televised Even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139-156.

David Throsby. (2004). 「문화경제학」. Economics and Culture. 성제환(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Liam Delaney・Francis O'Toole. (2006). Willingness to pay: individual or househol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John E. Anderson. (2002). Public Finance:Principles and Policy. Houghton Mifflin Company.

Jose Angel Sanz · Luis Cesar Herrero · Ana Maria Bedate. (2003). Contingent Valuation and Semiparametric Methods: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Museum of Sculpture in Valladolid, Spai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241-257.

Juan Prieto-Rodriguez · Victor Fernandez-Blanco. (2006). Optimal pricing and grant policies for museum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169-181.

Musgrave, Richard A. and Peggy B. Musgrave. (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Trine Bille Hansen. (1997).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Royal Theatre in Copenhagen as a Public Goo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1:1-28.

부 록

<설문지>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가치 측정을 위한 면접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이은정입니다.

본 조사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경제적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설문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에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은정
연락처: 016-349-0357

※ 본 설문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기혼) 또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설문지를 되돌려 주십시오.

• 면접 완료 후 기록하시오.

응답자 성명: _____ 전화: _____

응답자 주소: _____시 _____군 _____동 _____호
(아파트 동 호)

면접 일시: 2006년 ___월 ___일 _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____분간)

면접원 성명: _____ 전화: _____

PART A. 문화서비스에 대한 의견 조사

※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용		전적으로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않음
A.1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5	4	3	2	1
A.2	제주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5	4	3	2	1
A.3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5	4	3	2	1
A.4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5	4	3	2	1

PART B.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인지도 조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명칭: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 사업지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
- 사업지구 면적: 24,342㎡(7,363평), 연면적: 8,876㎡(2,685평)
- 사업기간: 2006.1~2008.8
- 소요자금: 150억원

B.1. 선생님께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① 대부분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른다.

PART C.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

◆ 현재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

C.1. 지난 1년 동안 음악회, 연극, 무용공연 등이 열리는 공연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C.2로 가십시오.)　　② 없다.

.

C.2. 지난 1년간 공연 관람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무용공연, 민속공연, 대중음악공연, 전시회 포함)　(　　)회

C.3. 지난 1년간 공연 관람에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① 1만원 이하　② 1만원~2만원 이하　③ 2만원~3만원 이하
④ 3만원~4만원 이하　⑤ 4만원~5만원 이하　⑥ 5만원~6만원 이하
⑦ 6만원~7만원 이하　⑧ 7만원~8만원 이하　⑨ 8만원~9만원 이하
⑩ 9만원~10만원 이하·　⑪ 10만원 초과

C.4. 현재 도내 공연관람시설에서 음악, 오페라, 연극, 무용 공연 등이 시연되고 있는데, 이들 공연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아주 불만족한다.

C.5. 현재 도내 공연관람시설은 제주문예회관, 학생문화원, 제주시민회관, 한라아트홀, 수운야외공연장, 탑동해변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C.6로 가십시오.)　⑤ 아주 불만족한다. →(C.6로 가십시오.)

C.6. 제주도내 공연관람시설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

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없어서　② 관람료가 비싸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시설 수준이 낮아서
⑤ 정보가 부족해서　　⑥ 공연 홍보가 미흡해서　　⑦ 기타

◆ 지불의사액에 관한 질문

도내 공연 관람시설 중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한 대표적인 시설은 제주문예회관, 한라아트홀, 제주민속관광탐라극장 등이 있습니다. 896석의 대극장, 200석의 소극장을 갖추고 있는 제주문예회관은 지난 2005년에 155회의 음악공연, 71회의 연극・뮤지컬・오페라공연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831석의 대극장, 240석의 소극장을 갖추고 있는 한라아트홀은 지난 2005년, 50회의 음악공연과 98회의 연극・뮤지컬・오페라 공연, 225회의 기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시설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장이 부족하고, 시설수준도 낮아 다양하고 충분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좌석 수는 972석의 중급이지만 무대시설 면에서는 현재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 등이 동시 공연이 가능할 정도이며, 최신형의 조명・음향시설을 갖추게 되어 문예회관을 능가하는 시설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라문예회관이 완공되면, 기존의 공연관람시설에서 제공하던 것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주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사원은 한라문예회관 조감도 사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귀하가 납부하는 세금이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소득세에 부과되는 '문화발전기금'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가구에서는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지불에 동의하신다면 그 금액은 선생님의 가구에서 월 1회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신 후 다음 질문에 신중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가구당 월 1회의 '문화발전기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십시오.)

C.7.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가정에서는 매월 _____원의 '문화발전기금'을 낼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C.8로 가십시오.) ② 없다. →(C.9로 가십시오.)

C.8.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구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매월 (2배가격) _____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C.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C.11로 가십시오.)

C.9.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구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매월 (1/2배가격) _____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C.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C.10으로 가십시오.)

C.10.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구는 단 1원도 지불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① 지불할 의사가 있다. →(C.11로 가십시오.)
② 지불할 의사가 없다. →(C.12로 가십시오.)

C.11.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구가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매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_____원)

C.12. 선생님께서 단 1원도 지불하실 의사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① 제시된 금액이 너무 높아 낼 이유가 없다.
②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내게는 별 가치가 없다.
③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내야 한다.
④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한라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을 하는 편이 더 낫다.
⑥ 기타

PART D. 사회경제적 사항에 관한 설문

※ 다음의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해당사항에 √로 체크하시거나 값을 적어 주십시오.

D.1. 성별	D.2. 연령	D.3. 가구주 여부	D.4. 현지역 거주기간	D.5. 총가족수	D.6. 해당가족수
□남 □여	_____세	□그렇다. □아니다.	_____년 _____개월	_____명	수입이 있는 사람 _____명 미취학 아동 _____명 초중고생 자녀 _____명 65세 이상 _____명

D.7. 선생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자영업 ② 판매/서비스직 ③ 기능직 ④ 일반작업직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관리직 ⑦ 전문/자유직
⑧ 농림어업 ⑨ 학생 ⑩ 전업주부 ⑪ 무직 ⑫ 기타

D.8. 선생님의 최고 교육수준은?(교육연수를 아래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9. 선생님 가구의 월 평균소득(세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⑧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⑨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⑩ 500만원 이상

- 선생님 가정의 연간 총 소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Recently people's interest in culture and requirement of cultural facilities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e government provides most of the cultural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differently than other countries. Since the 1980's, the Jeju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have required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facilities. Culture & Art Centers, a kind of cultural facility, are social goods or public goods that feature non-exclusion and non-rival consumption. That's why the government needs to complement the market functions to prevent market failure in adva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just how much the government complements the market function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evaluate the public value of cultural facilities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public cultural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ffects of Jeju Halla Culture & Art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the year 2008, in the local econom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Here, the benefit of this cultural facility was limited to its economic value and effect on local economy,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ulture industry in Jejudo. In addition, its cost was limited to construction expenses, the land purchase cost, and operational expenses. To measure the benefit of Halla Culture & Art Center,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benefit and cost of this policy, this study used the benefit-cost analysis, especially applying the Net Benefit (NB) which is often used to compare alternative plans and decide on one policy. Because of an analysis point of time of the benefit and cost, the Social Discount Rates should be considered. This study used three kinds of Social Discount Rate, 5%, 7.5%, and 10% in total, to analyze this policy more accurately.

It appears that the benefit of Jeju Halla Culture & Art Center is 149,737

million won per year in 5%, 121,328 million won in 7.5%, and 101,567 million won in 10%. Also, its cost is 61,959 million won in 5%, 51,276 million won in 7.5%, and 43,491 million won in 10%. Total Net Benefit of this policy was estimated to be 87,778 million won in 5%, 70,547 million won in 7.5%, and 58,076 million won in 10%. Consequently this cultural policy increased the social welfare of the Jeju community and was found to be an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Keywords: Cultural Facility, Social (Public) Goods, Efficiency, Benefit-Cost Analysi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gional Input-Output Model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감사의 글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과연 부족하고 한참 미약한 존재인 제가 이 논문을 끝마칠 수 있을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했고 감사의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제가 제대로 한 것인지 우려가 앞서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석사논문은 다음 연구과정의 첫 발걸음을 떼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배님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부시절부터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고, 조교를 시작할 때는 대 선배님으로서 지도를 해주셨으며, 대학원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항상 독려하여 주시면서,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제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상한 지도와 도움을 주셨던 황경수 교수님, 한참 부족한 제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면서도 엄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주셨던 강영훈 교수님, 평소에도 항상 옆에서 격려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를 많이 해주셨던 오승은 교수님을 비롯하여 학부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큰 가르침을 주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잘 것 없는 제 논문에 신경써주시고 격려해주신 행정학과 교수님들, 법정대학 교수님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논문을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기를 두려워할 때부터 격려와 논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고태호 선배님,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응원을 해주었던 김미연 선배님, 이지은 선배님, 임정현 선배님, 친구 오윤정, 송서순 선생님, 논문의 기초자료 수집 등 많은 도움을 주셨던 현을생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선생님들, 함께 공부하면서 제주도내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던 제주행정연구회의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원생님들, 조교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힘들고 지쳐할 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문영선, 고상희, 고영주, 김난이, 김현정, 부지원, 이미경, 양태혁, 이원기 등의 친구들, 본 논문에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할 때 싫은 내색 없이 도와주었던 우리 행정학과 3, 4학년 학생들, 같은 사무실 안에서 고생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변진희 선생님을 비롯, 학과 조교와 대학원생의 같은 울타리의 힘듦을 겪으며 서로 응원했던 법정대학 조교

선생님들, 인생의 선배로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는 현성훈 사촌오빠를 비롯한 우리 사촌오빠, 언니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덧붙여 일과 논문작업으로 지쳐하던 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서문성당 양명현 신부님, 홍석윤 신부님, 학교일도 힘든데 성가대 반주하면서 고생한다고 항상 따뜻한 마음과 자상한 모습으로 격려해 주신 고성자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서문성당 동생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셔서 자식들만큼은 열심히 공부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부족한 딸을 너무나 아껴주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우리 남동생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문제, 특히 문화행정 분야를 항상 고민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은정이가 되겠습니다.

2007. 1. 8. 이 은 정